

70년대 회고

신 훈 금호건설(주)/사장

K형에게!

K형에게 소프트웨어세계 원고 청탁을 받고 새삼스럽게 옛 추억이 떠올라 그 회상을 더듬어 보는 것으로 기고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K형!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이 70년대 초에 컴퓨터 사용자와 공급자와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 후 30여년을 지나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급자 대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회사는 달랐지만 한 배에 탄 진정한 식구처럼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오랫동안 함께 보낸 추억 때문일 것입니다.

K형!

회사가 새로운 정보화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회장을 모시고 전 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브리핑하면서 보여준 K형의 그날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된 브리핑 차트를 갖고 설명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막상 첫 장을 넘기고 냅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차트를 보고 참석한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을 때 백지 위에 요점을 정리해 내려가면서 조목조목 필요성을 설득해 나간 자신에 찬 K형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이 어려운 단안을 내려 컴퓨터 신기종을 도입키로 한 결정을 얻어냈던 일화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후 수년간을 K형 회사의 식구들과 한 팀워크를 이루어 낮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밤에는 호텔에서 합숙하면서 업무개발에 매달렸던 그 시절은 잊혀지지 않은 추억입니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 지겨워 신혼초 아내가 도시락을 싸 갖고 오기도 했고 가끔 양념으로 이웃방 모습을 훑쳐보면서 스트레스를 푼 적도 있었지요.

S/360 처음 컴퓨터가 들어오는 날,

컴퓨터 도입을 반대하는 부서에서 컴퓨터를 들어내 복도로 내 팽개쳐진 것을 그 위에 올라타고 밤새워 지키던 K형 회사의 영업사원인 또 다른 K형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급기야는 반대 부서와 합병을 시켜버리고 양부서 책임자들이 그만두게까지 한 사건도 있었지요. 온라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 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회사까지 K형 회사의 S형과 연수를 가서 한국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몇 개월을 어울리며 밤에 몰래 그들의 기계실에 남아 기계를 돌려보고 매뉴얼을 복사하며 호텔에 쌓아놓았다가 귀국하여 결국 그들보다 6개월 앞서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시키던 그 날의 감격을 영원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해외에서 처음 나가는 케이스였고 해외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 지도를 보니 벤쿠버가 만주와 위도가 비슷한 것만 보고 12월이라 매우 추울 것으로 보고 두꺼운 겨울 내복을 입고 겨울양복에 무겁고 두꺼운 빠이롱오바를 걸치고 트렁크에는 겨울옷만 잔뜩 넣어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첫 기착지가 하와이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행 비행기는 직행선이 없어 하와이에 일단 기착하여 거기서 통관 수속을 밟게 되어 있었지요.

영상30도가 가까운 날에 4시간동안을 사우나 같은 곳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하던 일,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거기는 따뜻한 멕시코 난류 때문에 겨울옷이 전혀 필요치 않은 곳이었지요.

프로그램 테스트 중 에러가 발생하여 그 어려운 어셈블러 덤프 리스트를 기계실 바닥에 늘어 뜨려놓고 밤새 디버깅하던 P형의 돌부처 같은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그 회사의 회장으로 계신 C회장이 임원으로 계실 때 K형과 함께 모시고 마이애미주 템파에 세미나에 갔다가 휴일에 낚싯배를 빌려 타고 5명이서 바다에 나가 온종일 굶으면서 모두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다가 내 낚시에 걸린 눈 먼 고기 한 마리로 회를 떠서 먹던 그 맛을 내 평생에 가장 맛있던 회 맛이었습니다.

참 아직도 골프실력은 100을 넘는 초보자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골프채는 아직도 수십 년간 애용하시던 아버님께 물려받는 것을 사용하시고 계시는지요. 언제 나에게 한 수 지도받으십시오. 그 외에도 수많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만 이만 줄어야겠습니다. 이제 K형도 그 회사에

가장 오래 몸담고 있다가 후배의 벤처회사에 그 경륜을 갖고 좋은 자문을 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새로운 하느님의 사명을 받드시는 일에도 큰 성과 있으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